

콘텐츠

2026년 3분기 운영위원 회의록.....	2
-------------------------	---

2026년 3분기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서 울 성 모 원

운영위원회 회의록(2026년도 3/4분기)

1. 일 시 : 2026년 09월 23일(수) 10:00~11:00
2. 장 소 : 우리시설 1층 프로그램실
3. 참석자 : 이○주, 송○재, 조○봉, 윤○재, 유○옥, 이○희
4. 회의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보고 및 회의자료 사전 배포

가. 시설장 인사말

이○주 시설장 : 우선해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 부득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진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유독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쁜 시간 쪼개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 회의에는 심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보고사항을 포함하여 운영 전반 전달사항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쪼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윤○재 후원자대표 : 회의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네요. 이렇게 회의자료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어요. 저야 워낙 신출 위원이란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배워간다는 자세로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송○재 지역주민 : 오늘 회의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사항도 필요하네요. 회의자료를 보니 정말 많은 운영실적이 있었고 또 예정된 운영 일정도 적지 않게 준비되어 있는데 또한 컨디션 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 시설장 : 먼저 시설 회계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로 함께 준비된 추가 경정예산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 일동 : 참고하겠습니다.

나. 보고사항:

1)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고

이○주 시설장 :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2026년도인 시설 회계 추가 경정 제1차 예산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로 준비된 예산총칙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의 예산총액이나 추경 경정 예산총액이나 총예산금액에는 변

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12월을 기준 했을 때 지출이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이 있어 수용기관경비의 계정과목 예산을 줄이는 대신 몇 가지 예산초과가 예상되는 계정과목에 필요한 액수만큼 재분배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총칙 및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이의 또는 기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봉 보호자대표 : 충분히 이해되었는데 부득이 수용기관경비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즉 감액시킨 마땅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소자 생필품을 포함한 사용 물품에 필요한 항목이다 보니 마음이 좀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 시설장 : 네. 그 경유에 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놀랐네요. 당해연도 다행히 어르신 사용 물품을 후원해주는 기업들이 소중한 도움을 계속해 이어주고 있습니다. 후원처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도 그렇고 또 얼마 후 있을 단체봉사팀인 KTC도 그렇고요. 원래 수용기관경비 예산으로는 거의 700만원 선을 고정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도 감사하게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이어주고 있어서요.

조○봉 보호자대표 : 너무 다행이네요. 경기도 어려운데 어르신 돌봄에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송○재 지역주민 : 모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지극정성 잘 보살펴주시니까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재 후원자대표 : 동의의견입니다. 요즘처럼 정도 인심도 참 각박하다 싶은 세상인데 그래도 성모원이니까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련이 가능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개정 및 심의사항

이○주 시설장 : 앞서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함에 있어 이 부분은 보고사항일까? 심의사항일까? 제 기준에서는 사실 조금 혼란스럽긴 했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편입하는 게 맞을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조○봉 보호자대표 : 예산! 즉, 돈의 흐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니 제 생각에는 심의사항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주 시설장 : 아!! 그렇군요. 앞으로 잘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일동 : 네. 알겠습니다.

라. 기타 전달사항

1) 어르신 인권 보호

이○주 시설장 : 우선해 자체 인권교육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리를 통해 몇 차례 반복 말씀드렸으나 어르신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이 큰 만큼 교육참여의 기회마련도 매우 중요하고 또 올바르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 분기별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어르신 대상 연 1회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성모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굳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연 1회는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님을 초빙해 교육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4분기인 10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재 후원자대표 : 참 많은 교육과 훈련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놀랐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돌봄도 쉽지 않은데 사업계획을 토대로 봤을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교육과 훈련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 거예요.

유○옥 종사자대표 : 맞아요. 어르신들만 잘 모시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다 필요한 항목들이니 저희 종사자들도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또 익히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교육자료들 준비하시느라 저희 원장님이 늘 고생이시죠!! 그래도 어르신들과 열심히 참여하면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희 입소자대표 : 내가 귀가 어두워 말을 다 알아듣진 못하는데 어디서 누구만 왔다 하면 할머니들 데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이 잘 해주냐, 목욕은 잘 시켜주냐, 식사는 잘 나오냐, 노랑 물어봐.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너무들 잘 모시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서 큰일이야. 내 나이가 지금 백 살이야 백 살, 내가 집에 있었으면 백 살까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겠어? 모두가 ‘인권, 인권’ 하는데 그 ‘인권’ 너무나 보호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있지.

조○봉 보호자대표 :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다 느껴지지요. 사랑받고, 존중받고 계시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런 면에서 늘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 후자대표 : 회의자료를 통해 인권교육, 재난 화재훈련, 재난 질식훈련, 응급상황훈련 등. 보기 좋게 사진도 다 첨부해주시고 너무 예쁘고 쉽게 자료에 잘 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좋지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나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시느라 원장님도 또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송○재 지역주민대표 : 물론 다 필요하니까 하는 교육들이겠지만 계획하고 훈련 진행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교육결과까지 다 준비하셔야 하니 참 쉽지 않겠네요. 여하튼 원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고 그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2)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구체적 내용

이○주 시설장 : 그럼 이어서 종사자의 고충 해결을 포함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 대표인 우리 팀장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옥 종사자대표 : 워낙 많은 방향으로 저희 노고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1인이라 회의 자리를 통해 매년 같은 질문을 받고 있음에 참 면목 없기도 또 송구하기도 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기회를 통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사자 회의(간담회) 자리가 연 4회 분기별이었었는데 지금은 반기별로 변화가 껴해졌다고 들었어요. 원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이지만 직원회의 형식의 간담회는 지향하지 않고 종사자의 고충 또는 애로사항들을 자연스럽게 경청하고 토로하는 방식의 종사자 간담회 형식을 지향한다고요. 저희는 원래 회식 느낌의 간담회로 계속 자리해서 그런지 그런 기회마련이 참 좋더라고요. 하여 제가 건의하고픈 사항은 평가지표를 떠나 원래 하던 데로 분기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한 번씩은 직원 회식 느낌의 간담회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십사 요청하고 싶습니다.

조○봉 보호자대표 : 좋은 방법이네요.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견이라면 저희는 무조건 다 좋다고 보죠. 그리고 그 정도면 원장님이 능히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윤○재 후원자대표 : 사실 제가 종사자 대표라고 해도 팀장님의 서두 말씀처럼 더 희망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 종사자 전체가 회동하는 기회마련에 대한 요청은 너무 합리적인 의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무조건 들어주실 거예요. (웃음)

송○재 지역주민 : 서로에게 꼭 필요한 자리이고 기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주 시설장 :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전체 선생님들과의 회동이 무척 뜻깊고 또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었고 평가지표를 떠나 좋은 운영방식은 무조건 유지해나가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마. 건의 사항 및 결론

1) 건의사항

이○주 시설장 : 다음으로 시설운영이나 종사자의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도 좋고 필요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의견들 주십시오.

조○봉 보호자대표 :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비록 시설운영이나 종사자의 작업환경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회의를 꼭 경청하며 저는 건의하고픈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인권교육이니 훈련이니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기 쉽게 사진도 첨부하고 개요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들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소규모 시설에서는 언감생시 꿈도 꿀 수 없는 이렇거나 좋은 복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재 지역주민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보니 저도 좀 그런 해석이 드네요. 원장님이 종사자들을 위해 해줄 것은 다 해주시면서 생색내기는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느낌으로 어림잡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들을 위해서라도 분기별 종사자 처우개선의 구체적 내용들을 함께 실어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윤○재 후원자대표 : 저도 두 위원님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꼭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겠으나 혹시나 저처럼 잘 모르는 위원도 있고 하니 다음부터는 종사자 대상의 좋은 실천 사례에 대해서도 자료에 함께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 입소자 대표 : 기왕 도 한마디 할게. 우리 원장이 젊었을 때 여기 왔는데 지금 보니 우리 원장도 많이 늙었네. 여기 와서 할매들 돌보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반들이 우리 원장 좀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운영위원 일동 : 네. 어르신. 잘 알겠습니다.

이희주 시설장 : 거듭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회의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추석을 며칠 앞둔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3분기 운영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사진

